

1933년2월25일 4면 4단

哲學과 文學

생각나는 대로의 斷片

(2) 申南徹

X X

생각은 반듯이 表現됨을 要求한다. 그것이 □□의일 ㅅ는 普通 理論的 表現을 가지고 그것이 直觀的 感情的일 ㅅ는 文學的 表現을 가진다고 한다.

이 文學的이라는 것은 □□를 解釋하여 □□的이라고하여도 조타. □□은 全然 □□을 否定한다고 한다. 그러나 이것은 □□至上主義者의 口吻이다. 생각을 이데오로기의 形態의 □□的인 것이라고 하면 그것의 表現은 이데오로기 그것이다. 잘하서 생각의 □□의 表現은 卽 이데오로기로서의 諸 形態를 가질 것이다. 생각은 感受와 表現의 中間物이다. 感受를 歷史的 □□에 잇서서의 體系的으로 理論化할 ㅅ는 그것은 이데오로기의 形態의 最高한 것으로서의 哲學이 될 것이다. 哲學에 잇서서는 感受는 그대로 □□하지 않는다. 그것은 一般의 世界觀의 □□에까지 □□한다. 그것에는 一般化의 作用이 있다. 그 作用의 結果로써 表現될 ㅅ는 그것은 哲學으로서의 이데오로기의 表現을 가진다. 그러나 □□의 表現에 잇서서는 生活에 잇서서의 感受가 그것의 具體性, 現實性을 그대로 가지고 社會的으로 材□의 表現에 잇서서 造形美術과 文學과가 區別된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.

哲學은 世界觀이다. 이 世界觀은 眞正한 意味의 唯物的 □□를 가진 ㅅ는 哲學的 科學이 되고 그리하여 統一的으로 世界를 認識한다.

哲學的 科學으로서의 唯物的 世界觀에 잇서서는 主知主義도 主意主義도 ㅅ는 主情主義도 스스로 自身을 □□하고 만다. 그러한 一面的인 理說은 觀念的인 正體를 □□하고 만다. 社會的, 歷史的 統一原理로서의 唯物的-싸라서 辨證法的 世界觀은 人類 最高의 이데오로기의 表現이다. 그러나 이 科學으로서의 哲學은 이데오로기의인 故로 自身을 □□한다. 그리하여 더욱더욱 歷史的, 社會的 性格을 가지게 된다. 이 □□의 體系로서의 哲學的 哲學은 그 點에 自身을 單只 이데오로기로 始終함을 쓰리고 永遠한 것이 되리라. 이 永遠이라는 時間은 解-결의 意味에 잇서서 現實的인 事物의 過程 그것을 가르침

